

## 《傷寒論》中 承氣湯類에 關한 研究

李秉柱·金東熙·金聖勳\*

### I. 緒 論

韓醫學의 治療法中 下法은 腸胃에 停留된 宿食, 燥屎, 實熱, 瘀血, 痰結, 水飲 等を 大·小便을 따라 瀉下시켜 腸胃를 蕩滌함으로써, 病邪를 除去하는 法<sup>1,2,4)</sup>으로, 《素問·至眞要大論》<sup>3)</sup>에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瀉之于內”에 依據하여 立法된 것이다. 이러한 下法의 具體的인 應用證과 方法은 張의 傷寒論의 承氣湯類에 比較的 體系的이고, 자세히 記載되어 있다<sup>2,4,5,25)</sup>.

承氣湯은 陽明病 腑實證에 瀉下의 目的으로 構成된 方劑<sup>4-6,8)</sup>로 傷寒論에 모두 大·小·調胃의 三方이 記載되어 있으며, 주로 燥熱이 津液을 損傷하여 實熱이 體內에 停滯함으로써 腑氣의 流通에 障礙를 招來하여 痞·滿·燥·堅·實 等を 特徵하는 病症에 應用된다<sup>2,4,5,25)</sup>. 또한 陽明腑實證은 病情의 變化와 體質의 虛實에 따라 三種의 承氣湯과 더불어 麻子仁丸, 蜜煎導法, 豬膽汁法 등이 活用된다<sup>2,4,5)</sup>.

承氣湯에 關한 研究로는 安<sup>6)</sup> 등의 “大承氣湯의 抽出方法이 家兔 腸管上皮의 粘液細胞에 미치는 影響”, 郭<sup>7)</sup>의 “理中湯과 大承氣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및 蔡<sup>8)</sup>의 “承氣湯證에 關한 研究” 등이 報告되었으나 承氣湯類의 病機, 處方構成의 特徵 및 臨床에서의 活用 等に 對한 綜合的인 比較考察은 아직 接하지 못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에 나타나는 各種 瀉下法의 臨床에서의 效果的인 活用을 위하여 承氣湯類의 藥物構成, 適應病證, 病理 및 臨床活用 等を 數種 文獻을 토대로 比較 分析하여 整理하여 보았다.

### II. 本 論

#### 1. 大承氣湯

##### 1) 處方構成

大黃 四兩(酒洗) 厚朴 半斤(炙, 去皮) 枳實 五枚(炙) 芒硝 三合

##### 2) 該當條文

###### (1) 陽明病 表未解 腑實形成證

○ 陽明病 脈遲 雖汗出 不惡寒者 其身必重 短氣 腹滿而喘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濇然 汗出者 此大便已鞭也 大承氣湯主之 [213條]

###### (2) 陽明病 腑實證의 重症

○ 傷寒若吐 若下後 不解 不大便 五六日 上至十餘日 日晡所 發潮熱 不惡寒 獨語 如見鬼三 若劇者 發則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濡者死 微者但發熱 譫語者 大承氣湯主之 若一服利 則止後服 [217條]

###### (3) 二陽併病 轉屬陽明腑實證

○ 二陽併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絳絳汗出 大便難 而譫語者 下之則愈 宜大承氣湯 [225條]

###### (4) 腸中の 燥屎阻結로 因한 便秘證

○ 病人不大便五六日 繞臍痛 煩躁發作有時者 此有燥屎 故使不大便也 [241條]

###### (5) 以脈辨證 ; 脈實한 日晡潮熱證

○ 病人煩熱 汗出則解 又如瘧狀 日晡所 發熱者 屬陽明也 脈實者 宜下之 脈浮虛者 宜發汗 下之與大承氣湯 發汗 宜桂枝湯 [242條]

###### (6) 下後 燥屎復結證

○ 大下後 六七日 不大便 煩不解 腹滿痛者 此有燥屎也 所以然者 本有宿食故也 宜大承氣湯 [243條]

###### (7) 陽明腑實內結, 大便乍難乍易證

○ 病人 小便不利 大便乍難乍易 時有微熱 喘冒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不能臥者 有燥屎也 宜大承氣湯[244條]

(8) 陽明病 瀉下後 燥屎內結證

○ 陽明病 下之 心中懊憹而煩 胃中有燥屎者 可攻 腹微滿 初頭鞭 後必漉 不可攻之 若有燥屎者 宜大承氣湯 [240條]

(9) 陽明病 陰液欲絶의 急下證

○ 傷寒 六七日 目中不了了 睛不和 無表裏證 大便難 身微熱者 此爲實也 急下之 宜大承氣湯 [254條]

(10) 陽明病 裏熱壅盛의 急下證

○ 陽明病 發熱 汗多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255條]

(11) 陽明病 津脫 燥實의 急下證

○ 發汗不解 腹滿痛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256條]

(12) 少陰病 燥實證으로 傷津 眞陰欲脱의 急下證

○ 少陰病 得之 二三日 口燥咽乾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320條]

(13) 少陰病 燥實阻結로 迫液下泄의 急下證

○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321條]

(14) 少陰病 臟腑不通 土燥水竭의 急下證

○ 少陰病 六七日 腹脹 不大便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322條]

3) 諸家의 說

承，順也。傷寒邪氣入胃者，謂之入腑。腑之謂言聚也。胃爲水穀之海，營衛之源。水穀會聚于胃，變化以爲營衛。邪氣入于胃也，胃中氣鬱滯，糟粕秘結，壅而爲實，是正氣不得舒順也。本草曰：通可以去滯，泄可以去邪。塞而不利，閉而不通，以湯蕩滌，使塞者利而閉者通，正氣得以舒順，是以承氣名之。王冰曰：宜下必以苦，宜補必以酸，言酸收而苦泄也。枳實苦寒，潰堅破結，則以苦寒爲之主，是以枳實爲君，厚朴味苦溫，《內經》曰：燥淫于內，治以苦溫，泄滿除燥，則以苦溫爲輔，是以厚朴爲臣。芒硝味鹹寒《內經》曰：熱淫于內，治以鹹寒，人傷于寒，則爲病熱，熱氣聚于胃，則謂之實。鹹寒之物，以除消熱實，故以芒硝爲佐。大黃味苦寒，《內經》曰：燥淫所勝，以苦下之，熱氣內勝，則津液消而腸胃燥，苦寒之物，以蕩滌燥熱，故以大黃爲使，是以大黃有將軍之號也。承氣湯，下藥也，用之尤宜審焉。審知大滿大實，堅有燥屎，乃可投之也。如非大滿，則猶生寒熱而病不除，況無滿實者，而結胸痞氣之屬，由是以生矣。是以《脈經》有曰：傷寒有承氣之戒，古人亦特謹之。

許 宏	議曰：中滿者，泄之于內，此方乃通泄之劑也。傷寒之邪，自表轉裏，若至陽明，則爲內實之盛也。……仲景所用大承氣者二十五症，雖口各異，然卽下泄之法也。其法雖多，不出大滿大熱大實，其脈浮實滑者之所當用也。
万有執	承氣者，承上而逮下，推陳以致新之謂也。曰大者，大實大滿，非此不效也。枳實泄滿也，厚朴導滯也，芒硝軟堅也，大黃蕩熱也，陳之推新之所以致也。
不著撰人	論曰：朴去痞，枳泄滿，硝軟堅，黃去實。海藏謂必痞滿燥實四症全而後可用，不易之論矣。總以大便實爲主，便實必以手足濇然汗出爲第一證驗。蓋表解後周身無汗而手足濇然，非燥屎熱氣不能使諸陽之本獨蒸蒸而潤也。
喻 昌	或問承氣湯，仲景有大、小，調胃之名，何也？然傷寒邪熱傳入裏，謂之入腑。腑者，聚也。蓋邪熱與糟粕，蘊而爲實也。實者潮熱譫語，手足濇然汗出者，此燥屎所爲也。如人壯大熱大實者，宜大承氣湯下之。又熱結不堅滿者，故減去厚朴，枳實加甘草以和緩之，故曰調胃承氣也。若病大而以小承氣攻之，則邪氣不伏；病小而以大承氣攻之，則過傷正氣。此不及還可再攻，過則不能復救，可不謹哉。
柯 琴	夫諸病皆因于氣，穢物之不去，由于氣之不順，故攻積之劑，必用行氣之藥以主之。抗則志，承乃積，此承氣之所由。又病去而元氣不傷，此承氣之義也。扶方分大、小，有二義焉。厚朴倍大黃，是氣藥爲君，名大承氣。大黃倍厚朴，是氣藥爲臣，名小承氣。味多性猛制大，其服欲令泄下也。因名曰大。味小性緩制小，其服欲令微和胃氣也。故名曰小。二方煎法不同，便有妙義。大承氣用水一斗，先煮枳朴，煮取五升，內大黃者取三升，內硝者，以藥之爲性，生者銳而先行，孰者氣鈍而和緩。仲景欲使芒硝先化燥屎，大黃繼通地道，而後枳朴除其痞滿，緩于制劑者，正以急于攻下也。若小承氣則三物同煎，不分次第，而服之四合，此求地道之通，故不用芒硝之峻，此遠于大黃之銳矣，故稱爲微和之劑。
張隱庵	所謂大承氣者，乃大無不該，主承通體大熱。芒硝生于斥鹵之地，感地水之咸氣結成，能下承在上之熱氣。《內經》所謂熱氣在上，水氣承之，此命名之大義也。大黃氣味苦寒，主破癥積宿食，蕩滌腸胃，推陳致新，通利而下行者也。枳實臭香形圓，氣味苦寒，多用主益胃氣，以行留滯。厚朴氣味苦溫，色性赤烈，炙香主厚脾土而破積滯。夫太陽腐濁之邪，相合陽明悍烈之氣，腐穢內實，火熱外蒸，乃上承大熱之氣而下泄其腐穢，名曰大承氣，卽大承氣之義也。

錢 潢	熱邪歸胃，邪氣依附于宿食粕滓而鬱蒸煎迫，致胃中之津液枯竭，故發潮熱而大便硬也。若不以大承氣湯下之，必致熱邪敗胃，譫語狂亂，循衣摸床等變致不救，故必鹹寒苦泄之若逐使下出，則熱邪隨宿垢而泄，猶釜底抽薪，薪去則火亦隨薪以出矣。然非必宿垢滿實而泄之也。胃中之熱邪盛者，亦在所必用。古人所謂用之逐熱邪，非下糟粕也。其制以苦寒下泄之大黃爲君，鹹寒軟堅下走之芒硝爲臣，又以辛溫下氣之厚朴爲佐，破氣泄滿之枳實爲使，而後可以攻堅瀉熱也。
王晉三	芒硝入腎，破泄陰氣，用以承氣者，何也？當知奪陰者芒硝，而通陰者亦芒硝，皆陽明燥結日久，至于潮熱，其腎中真水，爲陽明熱邪吸引，告竭甚急矣。若徒用大黃，厚朴，枳實制勝之法，以攻陽明，安能使下焦燥結急去，以存陰氣。故用假塗炭號之策，借芒硝直入下焦，軟堅潤燥，以後大黃，枳實得破陽明之實。破中焦窺犯下焦，故稱之曰大。因《經》言，下不以偶，所以大黃，芒硝再分兩次內煎，乃是偶方用奇法，以殺其勢，展轉回顧有如此。
吳 謙	諸積熱結于裏而成滿痞燥實者，均以大承氣湯下之也。滿者，腹脇滿急脹脈，故用厚朴以消氣壅；痞者，心下痞塞硬堅，故用枳實以破氣結；燥者，腸中燥屎乾結，故用芒硝潤燥軟堅；實者，腹痛大便不通，故用大黃攻積瀉熱，然必審四症之輕重，四藥之多少適其宜，始可與也。若邪重劑輕，則邪氣不伏；邪輕劑重，則正氣轉傷，不可不慎也。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는 本 方을 急性單純性腸梗阻<sup>1)</sup>, 傳染性腸梗阻, 蛔蟲性腸梗阻<sup>2)3)</sup>, 急性膽囊炎, 急性闌尾炎, 急性胰腺炎<sup>4)</sup>, 急性胃, 狂病, 呃逆<sup>5)</sup> 等の 陽明府實症<sup>6)</sup>에 屬하는 病證에 廣範圍하게 應用하였다. 다만 重要的 것은 痞, 滿, 燥, 實의 特徵이 보이는 病機인데, 어떠한 急性熱病(例를 들면 肺炎, 猩紅熱, 虐疾, 麻疹 等)을 莫論하고 모두 本 方을 應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衍 方

(1) 三一承氣湯<sup>7)</sup>

本 方에 甘草를 加한 것으로 傷寒, 雜病의 邪熱

이 內盛하여 積滯가 不去한 것을 治療한다. 腹脹 頭痛, 煩渴, 便秘의 症勢가 보이는 者, 或은 濕熱 下利하여 目疼, 口瘡, 喉痺, 瘡瘍 等の 症狀을 보이는 者에게 使用한다.

(2) 復方大承氣湯<sup>8)</sup>

本 方에 桃仁, 赤芍藥, 萊卜子를 加하고 枳實을 枳殼으로 바꾼 것이다. 一般性腸硬燥, 氣脹이 比較的 甚한 사람을 治療한다.

(3) 腸粘連緩解湯<sup>9)</sup>

本 方에서 大黃, 枳實을 去하고 木香, 烏藥, 萊菔子, 桃仁, 赤芍, 審瀉汁을 加한 것으로 가벼운 粘液性腸硬燥나 部分的인 腸硬燥를 治療한다.

(4) 黃龍湯<sup>10)</sup>

本 方에 甘草, 當歸, 人蔘, 桔梗, 生薑, 大棗를 加한다. 裏熱實證으로 氣血이 虛弱한 사람을 治療한다. 症勢는 自利清水, 色純清, 腹痛拒按, 譫語, 口苦乾燥, 口渴, 身熱, 體倦少氣, 或 便秘, 腹脹滿硬痛, 甚則循衣撮空, 神昏肢厥, 舌苔焦黃或焦黑, 脈虛이다.

5) 六一承氣湯<sup>11)</sup>

本 方에 柴胡, 黃芩, 甘草를 加하고 다시 鐵鏽水 三匙를 加한 것으로 潮熱自汗發, 譫語, 發狂, 斑黃, 腹滿便實된 陽明府實證을 治療한다.

6) 陷胸承氣湯<sup>12)</sup>

本 方에서 厚朴을 減하고 小陷胸湯(黃連, 半夏, 瓜蒌實)을 合한 것으로 肺와 大腸을 아울러 治療한다.

7) 清胰二號<sup>13)</sup>

本 方에서 枳實을 去하고 牡丹, 梔子, 赤芍, 木香, 元胡를 加한 것으로 甚한 胰腺炎(急性出血, 壞死性胰腺炎)을 治療한다.

6) 臨床報告

(1) 陽明腑實證<sup>14)</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56歲.

1) 《陝西新醫藥》1974 ; 1 : 59.

2) 《新醫藥雜誌》1978 ; 1 : 28.

3) 《陝西新醫藥》1973 ; 122 : 23.

4) 新中醫編輯室 ; 《老中醫醫案話選》 50首

5) 《江蘇中醫》1963 ; 1 : 32.

6) 《新醫學雜誌》 1976 ; 11.

7) 《宣命論方》에 收載됨

8) 《天津南開醫院處方》에 收載됨

9) 《中西結合治療急腹證》에 收載됨

10) 《傷寒六書》에 收載됨

11) 《醫方集解》에 收載됨

12) 《通俗傷寒論》에 收載됨.

13) 《中西醫結合治療急腹證》에 收載됨

14) 《新醫學雜誌》 1976 ; 11

② 症狀 : 患者는 20日 동안 病을 앓았다. 初期에 發熱과 惡寒이 있었는데 適當한 治療를 받지 못하였다. 그 後에 潮熱이 없어지지 않고 病情이 加重되어 面色黑, 兩目直視, 神昏不識, 口不能言, 喘促, 四肢強直하였다. 또한 全身이 乾澁하고 無寒했으며, 腹部가 硬堅하고, 舌壓子를 대고 口腔內를 보니 舌體焦黑하고 舌刺가 일어났으며, 脈은 沈有力하였다.

③ 治療 : 大黃 15g(後下), 厚朴 12g, 枳實 12g, 石膏 30g, 芒硝 15g(沖服)으로 水煎하여 두 번에 나누어 灌腸하였다. 3時間 後에 눈을 감을 수 있었고, 精神도 好轉되었으며, 말할 수도 있었고, 腹中에 腸鳴이 있었다. 그러나 大便은 不通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上方으로 한 번 服用하니 午前 10時 쯤에 燥便이 通하였으며, 精神도 爽快해지고, 말도 잘하고, 呼吸도 平穩해졌다. 또한 四肢도 活動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여전히 煩燥不安하였으며 口渴하고 不欲飲하였다. 이는 熱毒이 이미 내려갔으나 餘熱이 未淸한 것이므로 白虎湯合生脈散으로 바꾸어서 治療하였다. 五貼을 服用한 後에 完治되었다.

(2) 少陰兼陽明腑實證<sup>15)</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70歲.

② 症狀 : 가을에 瀉利를 앓아 治療를 받았으나, 도리어 病勢가 더욱 危急해졌다. 診斷해보니 脈細弦하고, 舌苔白厚하였다. 靑綠色의 水를 瀉下하기를 하루에 十餘次例하였다. 心下滿, 腹脹如鼓, 按之硬痛하고 噯氣가 많았으며, 때때로 綠水를 많이 嘔吐하였다. 咽乾하고, 食思冷物하였으며, 小便은 赤少하였다.

③ 辨證 : 그 證狀이 비록 瀉利多水하는 것이지만, 實은 腹中에 積滯가 除去되지 않아 熱迫膽液하여 上逆下拍하므로 吐泄하는 水의 色이 모두 綠色이 되는 것이다. 이는 熱結旁流한 것이다.

④ 治療 : 만약 急히 下하지 않으면 津液이 將次 脫盡하게 될 것이다. 以前의 醫師가 患者가 나 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分利滋補하는 藥을 投藥하였으나 病機에 맞지 않음으로 낫지 않은 것이다.

大黃 9g, 枳實6g, 厚朴, 芒硝 各 3g로 一貼을 水煎 服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渣糞을 많이 下했으며, 그 中에 糞塊가 많았으며, 諸症이 大部分 輕減되었다. 但只 噯氣와 服滿痛이 없어지지 않았다. 下後에 아직 未盡한 것이지만 患者가 年老하므로 下法을 다시 使用하면 胃의 津液이 傷할 것이 두려우므로 黃龍湯加鮮地黃으로 바꾸어서 服用케 했다. 頭痛이 과연 없었으며, 但只 若干의 頭暈이 있었고, 腹痛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如前히 渴하였고, 心下微滿했으며, 噯氣가 그치지 않았다. 頭汗出이 있었으며, 잠에 꿈이 많았고, 脈은 細滑脈으로 바뀌었다. 處方을 白虎加人蔘加麥門冬, 旋復花, 代赭石으로 바꾸어 服用케 하였다. 服用後에 모든 證狀이 사라졌다.

(3) 急性痢疾<sup>16)</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47歲.

② 症狀 : 三日 동안 腹中絞痛하고 下利紅白, 紅多白少, 裏急後重하는 證狀이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30餘次例나 大便을 보았다. 形體는 壯實하였으며, 面色은 潮紅하고 아울러 垢膩하였다. 渴喜冷飲하고 小便短赤하였다. 아울러 口脣은 乾紅하고, 舌邊과 舌尖이 모두 紅하였다. 舌苔黃厚하고 六脈이 모두 滑數有力하였다.

③ 治療 : 이는 通因通用의 治法으로 治療하고자 大承氣湯을 投與하여 腸胃의 實熱을 淸瀉하였다. 大黃 15g, 厚朴 9g, 枳實 9g, 元明粉 12g(沖服)으로 水煎하여 두 번에 나누어 服用케 했다. 一貼을 服用한 後에 下利가 밤 동안에 4회로 줄어들었고, 裏急後重도 大部分 減少되었다. 다시 一貼을 服用한 後에는 水樣便을 두차례 瀉下한 後에 諸症이 漸次로 減少되고, 오직 疲倦한 感만 있었다. 생각하기를 大腸에 餘熱이 淸解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다시 葛根黃芩黃蓮湯으로 바꾸어서 服用케 하였다. 後에 諸症이 모두 消失되고 健康을 回復하였다.

2. 小承氣湯

1) 處方構成

大黃 四兩(酒洗) 厚朴 二兩(炙,去皮) 枳實 三

15) 《天津醫藥》 1979 ; 8 : 358

16) 《中醫學報》 1977 ; 2 : 28

枚(大者,炙)

2) 該當條文

(1) 以藥測裏實證

○ 陽明病 潮熱 大便微硬者 可與大承氣湯 不硬者 不可與之 若不大便六七日 恐有燥屎 欲知之法 少與小承氣湯 湯入腹中 轉失氣者 此有燥屎也 乃可攻之; 若不轉失氣者 此但初斗硬 後必漉 不可攻之 攻之必脹滿不能食也 欲飲水者 與水則噦 其後發熱者 必大便復硬而少也 以小承氣湯和之 不轉失氣者 慎不可攻也 [214條]

(2) 陽明病 多汗津傷으로 인한 便硬譫語證

○ 陽明病 其人多汗 以津液外出 胃中燥 大便必硬 硬則譫語 小承氣湯主之 若一服譫語止者 更莫復服 [218條]

(3) 陽明腑實輕證

○ 陽明病 譫語 發潮熱 脈滑而疾者 小承氣湯主之 因與承氣湯一升 腹中轉氣者 更服一升; 若不轉氣者 勿更與之 明日又不大便 脈反微澁者 裏虛也 爲難治 不可更與承氣湯也 [219條]

(4) 太陽病 誤治傷津으로 인한 熱結成實證

○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後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和之愈[252條]

(5) 熱結旁流 痞滿實證

○ 下利 譫語者 有燥屎也 宜小承氣湯 [373條]

3) 諸家의 說

許 宏	證屬陽明者, 皆爲可下也. 若大滿, 大實者, 屬大承氣湯. 今此大熱, 大便硬未至于實, 只屬小承氣湯也. 以大黃爲君, 以蕩除邪熱; 以枳實爲臣, 而破堅實; 以厚朴爲佐使, 而調中除結燥也.
方有執	小承氣者, 以滿未硬, 不須軟也. 故去芒硝而未復致大下之也
不著撰人	若芒硝其性走下, 故惟蕩滌腸胃積滯, 以其鹹寒足以軟堅去實熱也. 然結未至堅者不可用. 蓋大黃清血分之熱, 故得大黃而瀉不止者, 飲粥湯, 胃得穀氣即止, 以胃之氣分不傷也. 合芒硝則兼氣分而峻寒之矣. 非有大熱者, 何以堪之? 人身溫暖之氣, 乃元氣也. 一傷猝難驟復, 故必熱邪太甚, 然後兼用之.
張隱庵	所謂小承氣者, 乃小無不破, 止內行腸胃之實, 而不外承氣分之熱, 故不用上承之芒硝, 止用大黃之下行, 配不炙之枳朴以通泄其腸胃, 此三承氣湯之各有所主也.

汪 琥	利者, 腸胃之疾也, 若譫語則胃家實, 與厥陰無與, 主腸中有燥屎, 不得下也. 治宜小承氣湯者, 此半利半結, 只須緩以攻之也.
錢 潢	小承氣者, 即大承氣而小其制也, 大邪大熱之實于胃者, 以大承氣湯下之. 邪熱輕者, 及無大熱, 但胃中津液乾燥, 而大便難者, 以小承氣微利之, 以和胃氣. 胃和則止, 非大攻大下之駛劑也. 以無大堅實, 故于大承氣中去芒硝. 又以邪氣未大結滿, 故減厚朴, 枳實也
王晉三	承氣者, 以下承上也, 取法乎地, 蓋地以受制爲資生之道, 故胃以酸苦爲涌泄之機, 若陽明腑實, 燥屎不行, 地道失矣. 乃用制法以去其實. 大黃制厚朴, 苦勝辛也; 厚朴制枳實, 辛勝酸也, 酸以勝胃氣之實, 苦以化小腸之糟粕, 辛以開大腸之秘結. 燥屎去, 地道通, 陰氣承, 故曰承氣, 獨治胃實, 故曰小.

4) 臨床應用

痢疾, 痘疹, 時疫胃熱 等に 腹滿, 大便硬或協熱下利, 或潮熱, 微煩或煩燥, 舌紅苔老黃<sup>17)</sup> 等이 보일 때 응용하였으며, 本 方을 基礎로 流行性日本腦炎<sup>18)</sup> 및 手術後 腸梗阻<sup>19)</sup>, 腸機能紊亂<sup>20)</sup> 等に 加減하여 應用되었다.

5) 衍 方

(1) 承氣養營湯<sup>21)</sup>

本 方에 知母, 當歸, 芍藥, 生地를 加한 것이다. 溫病에 數下하여 亡陰되고 裏證이 內在하며 아올러 熱渴을 보이는 者를 治療한다.

(2) 三化湯<sup>22)</sup>

本 方에 羌活을 加한 것으로 中風을 治하는데, 外로 六經의 形證이 있으면, 먼저 加減續命湯으로 證에 따라 治療하고, 內로 便尿가 阻隔되어 있으면 다시 本 方으로 治療한다.

(3) 承氣合小陷胸湯<sup>23)</sup>

本 方에 黃連, 半夏, 瓜蒌仁을 加한 것으로 溫病으로 三焦俱急, 大熱大渴, 舌燥, 脈不浮而躁甚, 舌

17) 腹滿, 大便不通者 或은 汗出, 大便硬, 譫語者 或發潮熱, 大便初斗硬後必澀者, 或 微煩, 小便數, 大便硬者 或 下利譫語者 或 大便不通, 噎膈하면서 譫語하는 者 等을 治療한다. (《方機》)

18) 蒲輔周醫案

19) 天津醫藥雜誌, 1961; 1: 1

20) 上海中醫雜誌, 1980; 4: 34

21) 《溫疫論補注》에 收載됨

22) 《活法機要》에 收載됨

23) 《溫病條辨》에 收載됨

色金黃, 痰涎壅盛한 것을 治療한다.

4) 三化丸<sup>24)</sup>

本 方을 丸劑로 한 것으로 腹中の 宿食과 陰莖의 熱을 다스린다.

5) 臨床例

(1) 手術後腸梗阻<sup>25)</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38歲

② 症狀 : 한쪽 배와 다리에 嵌頓疝이 있어 스스로 힘을 주어 제자리로 가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腸穿孔과 腹膜炎으로 發展하였다. 腸縫合手術後 3日째 되는 날 動力性腸梗阻가 發生하여 腹脹하고 壓痛이 있으며 肌肉이 緊張되고 腸鳴音이 消失되며 大便과 排氣가 없었다. 脈은 洪大有力하고 舌苔는 黃燥하였다.

③ 治療 : 行氣導滯하고 清熱解毒하는 法으로 小承氣湯에 黃金, 黃柏, 金銀花, 連翹를 加해서 治療하였는데, 服藥 4時間 後에 腸蠕動이 增強되고 稀便을 두차례 본 後 腹脹과 腹痛이 迅速하게 輕減되었다. 다음날 午後에는 飲食을 먹기 시작했다.

(2) 腸機能紊亂<sup>26)</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47歲.

② 症狀 : 外觀은 壯實해 보였다. 大便이 羊屎와 같았으며, 數日에 한번 보았다. 이미 네, 다섯달 동안 腹部가 脹滿한데 特히 小腹이 甚하였고, 恒常 腹脹으로 因하여 飲食을 먹을 수 없으며, 肢倦乏力하고 苔白厚膩하며 脈은 弦滑有力하였다. 內視鏡으로 透視해 보니 小腸에서 轉送하는 것은 正常이나 結腸에 入한 후(더욱이 下行結腸에서) 轉送이 매우 緩慢하였다.

③ 辨證 : 西醫의 診斷으로는 腸機能紊亂이나, 辨證해 보면 腸間氣滯에 屬한 것이다.

④ 治療 : 마땅히 行氣通腑해야 한다. 厚朴 24g, 枳實 9g, 生地黃 9g(泡服), 炒萊菔子 15g으로 構成하여 三貼을 投與하니, 大便이 通暢되었으며 繼續해서 上方에 加減하여 三貼을 服用시키니 完治되었다.

(3) 潰瘍病穿孔<sup>27)</sup>

24) 《幼科發揮》에 收載됨

25) 《天津醫藥雜誌》1961 ; 1 : 1

26) 《新醫藥資料》1976 ; 2 : 27

① 性別 및 年齡 : 男, 57歲.

② 初診症狀 : 腹部가 十六時間 정도 劇痛하여 入院하였다. 體溫이 37.7℃, 脈은 弦緊하고 血壓은 110/75이며 急性的으로 痛苦를 呼訴하며 舌紅苔白粗, 唇燥하였다. 腹의 肌肉이 緊張하고 硬實拒按하였다.

③ 辨證 : 潰瘍病穿孔으로 診斷하였다. 裏實하며 中焦에 鬱結한 것이다.

④ 治療 : 入院後 東西醫를 結合하여 非手術療法으로 禁食, 胃管減壓, 補液 등의 治療를 하였다. 鍼으로는 天樞, 足三里 등의 穴을 刺하였다.

⑤ 再診 症狀 : 鍼刺後 腹痛이 輕減되어 連續的으로 治療하였다. 48 時間 後에 腹痛 및 壓痛이 右上腹部에 局限되면서 腸鳴音이 恢復되고 아울러 排氣가 있었다. 舌邊紅, 苔黃, 脈數하며 手足이 熱하고, 體溫이 38.4℃로 되돌아오며 穿孔이 閉合되었다.

⑥ 辨證 : 中焦에 鬱結하여 化熱한 것이다.

⑦ 治療 : 攻裏通下하고 清熱解毒하는 法이 마땅하지만 患者가 나이가 들어 體弱하므로 扶正祛邪하여 攻補를 兼施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다. 小承氣湯에 黨參, 甘草, 木香, 砂仁을 加하여 投藥하니 두시간 後에 大便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섯시간 後에 다시 大便을 보았다. 腹脹痛이 顯著히 輕減되고 飲食도 먹을 수 있었다. 다음날 一貼을 다시 服用시켜 餘邪를 除去하였다. 服藥後 두번 排便하고 腹痛이 消失하고 熱이 退하며 苔가 薄白해지고 脈이 緩和해졌다. 病院에서 八日동안 入院治療한 後 完治되어 退院하였고 後에도 治療를 繼續하였다.

3. 調胃承氣湯

1) 處方構成

大黃四兩(去皮, 淸酒洗) 甘草二兩(炙) 芒硝 半升

2) 該當條文

(1) 發汗後 裏實證

○ 發汗後 惡寒者 虛故也 不惡寒 但熱者 實也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 [70條]

(2) 陽明病 譫語下利

27) 《新醫學》1975 ; 4 : 212

○ 傷寒十三日不解 過經 譫語者 以有熱也 當以湯下之 若小便利者 大便當鞭 而反下痢 脈調和者 知醫以丸藥下之 非其治也 若自下利者 脈當微厥 今反和者 此爲內實也 調胃承氣湯主之 [210條]

(3) 陽明內實 熱鬱心煩

○ 陽明病 不吐 不下 心煩者 可與 調胃承氣湯 [212條]

(4) 太陽病汗後 轉屬陽明胃實證

○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 [250條]

(5) 陽明燥實 腹滿證

○ 傷寒吐後 腹脹滿者 與調胃承氣湯 [251條]

3) 諸家の 說

成無己	《內經》曰：熱淫于內治以鹹寒，佐以苦甘。芒硝鹹寒以除熱，大黃苦寒以瀉實，甘草甘平，助二物，推陳而緩中
許宏	問曰：諸下泄方中，皆不用甘草，獨此方中復用甘草，何也？答曰：諸下泄方，乃下大實大熱之證，速如星火，甘草能緩諸藥，是以去也。獨此方中乃調和胃氣，故用甘草以緩其中也。
王肯堂	大黃泄實，芒硝軟堅，甘草和中，必燥實堅三證全者可用
人	此比大小承氣，獨有甘草而無枳，朴爲異。仲景用此湯，凡七見，或因吐下津乾，或因煩滿氣熱，總之熱不和，而非大實滿者比。故不欲其速下，欲其戀膈而生津，特加甘草，以調和之，故曰調胃。然胃既熱結，須硝黃開之，則其氣之壅而不接可知。承者，順也。順其氣以接之也。故亦曰承氣。
張璐	仲景調胃承氣湯證，八方中并無乾燥，不過曰胃氣不和，曰胃實，曰腹滿，則知此湯專主表邪悉罷，初入腑而欲結之證也。仲景以調胃承氣收入太陽陽明，而大黃注曰酒浸，是太陽陽明去表未盡，病在上不當攻下，故云緩劑以調和之。
柯琴	此治太陽陽明并病之合劑也。因其人平素胃氣有餘，故太陽病三日，其經未盡，即欲再作太陽經，發汗而外熱未解。此外之不解，由于裏之不通。故太陽之頭項強痛雖未除，而陽明之發熱不惡寒已外見。此不得執太陽禁下之一說，坐視津液之枯燥也。少與此劑以調之，但得胃氣一和，必自汗而解。
汪琥	或問云：胃喜溫暖，故凡溫暖之藥，可稱調其胃，上方中用硝黃，咸苦大寒，止炙甘草一味溫暖，反少用之，何也？余答云，胃以溫暖爲適中，所以胃犯大熱之氣，則太過而不調，犯大寒之氣則不及而不調。今者胃有鬱熱而煩，是太過也。故方中專藉甘草引硝黃瀉胃中有餘之熱，調和其氣而使之耳。調胃之名，正以此也。今醫于上方中，甘草多用生者，此亦是泄有餘之義。

張隱庵	所謂調胃承氣者，乃調和中氣。瀉少陽君火之熱氣內結于胃中。胃氣上通于心也，故用芒硝以承氣，以大黃以下行，配甘草以和中，不用枳朴之破泄，此調胃承氣之義也。
錢潢	調胃者，調和胃氣也。胃有實邪而譫語煩亂，故以大黃芒硝之鹹苦泄之。又恐其性力之峻，更以甘草之甘緩和之。所煮不過一升，而又少少服之，使胃氣和平而已。
王晉三	調胃承氣者，以甘草緩大黃，芒硝留中泄熱，故曰調胃。非惡硝黃傷胃而用甘草也。泄盡胃中無形結熱，而陰氣亦得上承，故亦曰承氣。其義亦用制勝，甘草制芒硝，甘勝鹹也；芒硝制大黃，鹹勝苦也。去枳實，厚朴者，熱邪結胃劫津，恐辛燥重劫胃津也。
舒詔	調胃者，調和胃氣也。大黃用酒浸，緣酒性上升，大黃得之，則緩于下矣。若不爾，乃隨急性之芒硝一直達下，而無戀膈生津之用，何爲調胃耶。承氣者，承領一纜未亡之陰氣也，大實大滿，法當急下者，則用大承氣，稍輕者則宜調胃。
吳謙	方名調胃承氣者，有調和承順胃氣之義。非若大小承氣之專攻下也。經曰：熱淫于內，治以鹹寒；火淫于內，治以苦寒。君大黃之苦寒，臣芒硝之鹹寒，二味并舉，攻熱瀉火之力備矣。恐其速下，故佐甘草之緩；又恐其過下，故稍稍溫服之，其意在峻而和也。

4) 臨床應用

現代 臨床에서는 本 方을 急慢性腎炎, 正副傷寒, 急性肝炎, 糖尿病<sup>28)</sup>, 肺炎, 急性菌痢, 腦血管障礙, 急性腸梗痺<sup>29)</sup>, 急性胰腺炎<sup>30)</sup>, 闌尾炎 및 五管科疾患에 對하여 使用하는데, 이 때에 臨床土 傷寒에 邪熱이 陽明腑證으로 入하거나, 溫病邪가 氣分으로 入하여 津傷燥熱로 痞滿하되 不甚한 者에 使用하는 것으로 報告되었다.

5) 衍方

(1) 白虎承氣湯<sup>31)</sup>

本 方에 石膏, 知母, 陳倉米를 加한 것으로 陽明腑病을 治療한다.

(2) 導赤承氣湯<sup>32)</sup>

28) 消中 渴症이 있으면서 飲食을 많이 먹는 者를 治療한다(《試效方》)

29) 湖南醫藥學雜誌, 1978 ; 3 : 34

30) 本方에 柴胡, 龍膽草, 敗醬草를 加하여 急性 胰腺炎 患者 64례를 治療하였다 報告함. 科研資料匯編, 貴陽醫學院, 1973.

31)《通俗傷寒論》에 收載됨

32)《溫病條辨》에 收載됨

本方에서 甘草를 빼고 生地, 赤芍, 黃連, 黃芩을 加한 것으로 陽明溫病, 小便赤痛, 大便秘結하고 時煩渴함을 治療한다.

(3) 通神散<sup>33)</sup>

本方에서 甘草를 빼고 檳榔, 桃仁, 郁李仁, 木香을 加한 것으로 婦人熱實, 大便秘通, 心腹脹痛에 손을 가까이 대지 못하고 心胸이 煩悶하며 六脈이 沈滑하고 實한 것을 治療한다.

(4) 涼隔散<sup>34)</sup>

本方에 梔子, 黃芩, 薄荷, 連翹를 粉末로 해서 加한다. 上中二焦의 熱邪熾盛과 心胸 肺胃의 灼함으로 煩躁口渴, 面赤脣焦, 口舌生瘡, 胸膈煩熱 或咽痛, 吐衄血, 便秘尿赤, 舌紅苔黃乾, 脈滑數 등의 症狀이 出現하는 것을 治療한다.

(5) 玉燭散<sup>35)</sup>

本方에 四物湯을 加한 것으로 血虛裏熱, 大便秘結, 或 婦人經後不通, 腹脹作痛 등을 治療한다.

(6) 增液承氣湯<sup>36)</sup>

本方에서 甘草를 빼고 玄蔘, 麥門冬, 生地를 加한 것으로 陽明溫病, 熱結陰虧, 燥屎不行, 下肢不通하는 者를 治療한다.

6) 臨床報告

(1) 陽明腑實<sup>37)</sup>

① 症狀 : 平素에 烟色에 傷하여 大便秘 7-8日에 한번 下하였는데, 지금 다시 外感實熱을 받아 16-17日에도 大便秘 通하지 아니하였다. 心中煩熱하며 腹中脹滿하여 洗腸法을 使用하여 燥糞을 조금 빼어도 脹滿煩熱이 前과 같았다. 醫師가 그 氣虛脈弱을 함을 보고 감히 降下의 藥을 주지 못하였다.

② 治療 : 調胃承氣湯에 野黨蔘 4錢, 生磁石, 天門冬 各 8錢을 使用하여 같이 끓여 세 차례로 나누어 서서히 따뜻하게 마시게 하였다. 두 번 마시자 배에서 소리가 나고 뚝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세 번째 服用하고는 더 이상 服用하지 못하

고 大便秘 通下하고 內熱이 없어지며, 症狀이 確然히 좋아졌다.

(2) 裏熱假寒下痢<sup>38)</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2歲.

② 症狀 : 病이 下痢하고 目閉하고 心冷하였다. 먼저 醫師가 少陰證으로 認識하고 理中四逆의 劑로 投藥하였으나 도리어 病이 危篤한 狀態로 되어 나에게 付託하였다. 그 脈을 診察하였는데 甚히 濡러도 얻을 수가 없었다. 前醫師가 말한 바에 根據하면 脈이 끊긴지 半日이 되었다. 만약 脈이 끊긴지 半日이 되었다는데도 生氣가 있다면 그 中에는 반드시 原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仔細히 觀察하여 보았다. 舌黃苔燥하였고, 再次 肛門을 보매 周圍에 紅赤色으로 異常이 있고 그 便이 甚하게 粘貳하였다. 下痢가 비록 頻繁하나 그 量이 매우 적어서 少陰에 下痢清穀함과는 매우 달랐다.

③ 辨證 : 이는 伏熱과 聯關되어 熱이 甚하고 厥이 甚한 것으로, 몸이 冷하고 脈이 伏한 것은 內에 眞熱이 있고, 外에 假寒이 있어서 몸이 찬 것이다.

④ 治療 : 결국 '熱淫于內 治以鹹寒 佐以甘苦'에 根據하여 調胃承氣湯에 朴硝 7.5g, 大黃 4.5g, 黃芩 2.4g, 黃連 2.4g, 甘草 2.4g을 加味하여 服用한 後에 검은 便을 많이 下하고, 脈이 出하며 손이 따뜻해지고 渴症을 느껴 자주 마시었다. 다음날에 原方을 한 칩 連續해서 服用케 했는데 完治되었다.

(3) 熱厥<sup>39)</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28歲

② 症狀 : 갑자기 頭痛, 嘔吐를 同伴하며 昏迷하여 이를 동안 病院을 다녔는데 煩躁不安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며 惡心하고 물을 마신 즉 吐하고 肢厥하고 거듭해서 昏迷하였다. 脈은 弦細하고 누르면 實하며 苔黃하고 小便은 적고 大便秘 5日동안 行하지 않았다.

③ 治療 : 脈과 證이 오히려 實하여 먼저 釜底抽薪法을 使用하였다. 處方을 大黃 9g, 元明粉 9g,

33)《婦人良方大全》에 收載됨

34)《太平惠民和劑局方》에 收載됨

35)《醫宗金鑑》에 收載됨

36)《溫病條辨》에 收載됨

37)《囊中參書錄》에 收載됨

38)《福建中醫藥》1961;3:4

39)《福建中醫藥》1964;5:44



甘草 3g으로 藥을 먹은 後 泄瀉를 네차례 하였는데 痰이 많았으며 臭氣가 甚했다. 昏厥이 일어나지 않고 다만 心中이 焚한 것 같아 煩躁를 참기 어려웠다. 頭痛이 마치 挫하는 것 같고 嘔吐가 더욱 甚하여 졌다. 口乾, 觀赤, 舌紅中薄苔, 脈全虛數하여 陽明腑實과 비록 通하나 다만 胃陰이 怯함을 받아 胃熱이 오른 것이므로 胃陰을 回復하고 胃熱을 맑히고 兼하여 降逆鎮嘔하는 法을 使用하였다. 黨參 12g, 生石膏 30g, 竹葉 9g, 梗米 9g, 麥冬 12g, 半夏 12g, 甘草 3g, 杜心土 한주먹(가루 내어 沖服하였다.)의 處方으로 服用하였는데, 嘔吐가 멈추고 藥을 먹은 後 頭痛心煩이 減少하며 잘 수 있었다. 以後에 이 處方을 勸案하여 或은 蠶蠶, 菊花, 大靑葉으로 清肝泄熱하고 間間히 樓仁, 元明粉으로 泄熱導下하였는데, 症狀이 날로 緩和되었다.

(4) 燥熱初結<sup>40)</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10歲.

② 症狀 : 發病後에 每日 午後나 저녁에 發熱하여 體溫이 39℃쯤 되고 漸次로 惡寒感이 甚해졌다. 때때로 煩躁하고, 吐하려 해도 吐가 나지 않고 大便이 5日동안 不通하고 다만 腹部的 脹滿疼痛은 없었다. 小便은 正常이며 舌質이 紅하고 苔가 薄黃少津하며 脈이 滑數했다.

③ 治療 : 傷寒論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可與 調胃承氣湯”에 根據하여 調胃承氣湯으로 治療했다. 大黃 9g, 芒硝 9g, 甘草 6g를 물에 끓여 2차례로 나누어 먹었다. 한 찻을 먹은 후, 稀糞燥屎 黑壤를 수차례 泄瀉하고 그 날 發熱이 없어졌으며, 뒤에 調補劑를 供給하자 食慾이 增加하고 大小便이 正常이 되었으며, 다른 症勢도 없어졌다.

(5) 牙周炎<sup>41)</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23歲.

② 症狀 : 上齒 牙周炎의 病이 이미 5個月 되었다. 牙齦紅腫, 疼痛, 充血에 膿液이 있고 口臭身熱, 口渴煩躁, 夜不安味, 大便秘結하여 6日동안 便이 없었다. 脈이 滑數有力하며 舌苔가 黃厚하고 舌質紅하였다.

③ 辨證 : 胃火實熱이다.

④ 治療 : 清泄胃火法을 使用하여 調胃承氣湯 加味를 利用했다. 大黃 9g, 元明粉 9g, 甘草 3g, 玄蔘 15g으로 二貼을 服用한 後 泄瀉를 몇차례 하고 牙根腫痛이 輕減하고 身熱이 점차 물러났으며 繼續的으로 清胃散을 加減하여 주었는데, 證狀이 더욱 좋아졌다.

(6) 蛔厥(蛔蟲性腸梗阻)<sup>42)</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37歲.

② 症狀 : 泄瀉가 2일전부터 있었고, 하루에 수십차 하여서 洋醫師에게 治療를 받고 나왔다. 그 뒤 繼續的으로 腹脹과 大便不通, 腹脹痛이 出現하며 痛症이 甚하여 嘔이 나고, 煩躁不安하며, 黃色稀水를 吐하고 蛔蟲 4마리가 나왔다. 洋醫師가 蛔蟲性腸梗阻로 診斷하였다. 診察해보니 口唇乾燥, 煩躁不安, 嘔吐不止하고 黃色稀水를 吐하며, 또한 糞便에 냄새가 나고, 복처럼 腹脹하고 脈狀이 沈細하고 舌苔가 黃厚하다.

③ 辨證 : 蛔厥에 屬하나 다만 正氣가 不足하고 邪氣가 有餘하므로 비록 否滿燥實이 갖추어졌으나 體虛하여 猛烈히 下하지 못할 것이다.

④ 治療 : 調胃承氣湯으로 和해야 한다. 生地黃 9g, 元明粉 9g, 生甘草 3g으로 服用 한 後 午後 2~12시에 4차례의 大便을 보았는데 糞色이 처음은 검고 나중은 노랗게 되며 중앙에 蛔蟲 7마리가 있었으며 嘔吐가 그치고 腹脹이 除去되었다. 당일 저녁에 牛奶(소젖)를 조금 주고, 다음날 流質飲食을 주었더니 病情이 好轉되어 1週日만에 退院하였다.

4. 麻子仁丸(脾約丸, 麻仁滋脾丸)

1) 處方構成

麻子仁 二升 芍藥 半斤 枳實 半斤(炙) 大黃一斤(去皮) 厚朴一斤(炙, 去皮) 杏仁 一升(去皮尖, 熬, 別作脂)

2) 該當條文

(1) 脾約證

○ 趺陽脈 浮而濇 浮則胃氣強 濇則小便數 浮濇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 (249條)

40) 《山東中醫學院學報》 1977 ; 3 : 3

41) 《經方應用》1981

42) 《上海中醫藥》 1966 ; 2 : 26

3) 諸家들의 說

成無己	約者，結約之約，又約束之約也。《內經》曰：飲入于胃，游溢精氣，上輸于脾，脾氣散精，上歸于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精並行。是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今胃強脾弱，約束津液，不得四布，但輸膀胱，致小便數而大便秘，故曰其脾爲約。麻仁味甘平，杏仁味甘溫。《內經》曰：脾欲緩，急食甘以緩之。麻仁杏仁潤物也。《本草》曰：潤可去枯。脾胃乾燥，必以甘潤之物爲之主，是以麻仁爲君，杏仁爲臣，枳實味苦寒，厚朴味苦溫。潤燥者必以甘，臣以潤之，破結者必以苦，苦以泄之，枳實厚朴爲佐，以散脾之結約。芍藥味酸微寒，大黃味苦寒，酸苦泄泄爲陰。芍藥大黃爲使，以下脾之結燥。腸潤結化，津液還入胃中，則大便秘，小便少而愈矣。
方有執	麻子，杏仁能潤乾燥之堅；枳實，厚朴能導固結之滯，芍藥斂液以輔潤，大黃推陳以致新，脾雖爲約，此之疎矣。
張璐	此治素胃脾約之人，復感外邪，豫防乾結之法。方中用麻仁，杏仁以潤腸燥，芍藥以養陰血，枳實，大黃以瀉實熱，厚朴以破滯氣也。然必因客邪加熱者用之，方爲合轍。後世以此概治老人津枯血燥之閉結，但取一時之通利，不顧愈傷其真氣，得不速其咎也。
柯琴	土爲萬物之母者，以其得和平之氣也，濕土不能生草木，然稻藕麥苡等物，亦有宜于水者。若燥土堅硬無水以和之，卽不毛之地矣。凡胃家之實，多因于陽明之熱結，而亦有因太陰之不開者，是脾不能胃行其津液，故名爲脾約也。承氣諸劑，只能清胃，不能扶脾，如病在倉卒，胃陽實而脾陰不虛，用之則胃氣通，以大便之開合如故。若無惡熱自汗煩燥脈滿譫語潮熱等症，飲食小便如常，而大便常自堅硬，或數日不行，或出之不利，是謂之孤陽獨行，此太陰之病不開，而穢汗之不去，乃平素之蓄積使然也。愧而不治，則飲食不能爲肌肉，必致消瘦而死。然腑病爲客，臟病爲主；治客須急，治主須緩。病在太陰不可蕩瀦以取效，必久服而始和。蓋陰無驟補之法，亦無驟攻之法。故取麻仁之甘乎入脾，潤而多脂者爲君；杏仁之降氣利竅，大黃之走而不守者爲臣；芍藥之滋陰斂液，與枳朴之消導除積者爲佐，煉蜜和丸，少服而漸加焉，以知爲度，此調脾承氣，推陳致新之和劑也。使脾胃更虛更實，而受盛傳導之官，各得其職，津液相成，精血相生，神氣以清，內外安和，形體不敝矣。
錢潢	麻仁味甘而潤。李時珍云，麻仁，阿膠之屬，皆潤劑也，杏仁苦辛油滑，皆潤燥之劑，芍藥酸收，所以益陰而斂津液也。厚朴辛溫，下氣而寬中，枳實味苦，能破結利氣，大黃苦寒下泄，以能蕩除實熱，藥物雖峻，實和胃之法也。
尤怡	浮者陽氣多，澁者陰氣少，而附陽見之，是爲胃強而脾約。約，約束也，猶弱者受強之約束，而氣餒不用也。脾不用而胃獨行，則水液并趨一處，而大便失其潤矣。大黃枳實厚朴所以瀉令胃弱，麻仁杏仁，芍藥所以滋令脾厚，用蜜丸者恐速下而傷其脾也。

王晉三	下法不曰承氣，而曰麻仁者，明指脾約爲脾土過燥，胃液日亡，故以麻杏潤脾燥，白芍安脾陰，而後以枳朴大黃承氣法勝之，則下不亡陰。法中用丸漸加者，脾燥宜用緩法，以遂脾欲，非比胃實當急下也。
-----	--

4) 臨床應用

本方은 원래 脾約證을 治療하는데 使用되었으나, 現在는 虛弱人과 老人의 腸燥便秘와 習慣性便秘를 治療하는데 많이 適用되었으며, 蛔虫性腸閉塞<sup>43)</sup>, 噎膈, 咳喘, 陰虛鬱熱煩躁<sup>44)</sup>를 다스리는데 應用되었다.

5) 衍方

(1) 潤腸湯<sup>45)</sup>

本方에 芍藥을 去하고, 枳殼을 枳實로 바꾸고, 生熟地, 黃金, 桃仁, 甘草를 加한 것으로, 體液枯燥를 治療하고 腸內燥熱로 인한 習慣性便秘와 高血壓, 動脈硬化症, 慢性腎炎이 便秘와 合併했을때 治療한다.

(2) 麻仁丸<sup>46)</sup>

本方에서 芍藥과 杏仁, 厚朴을 去하고, 枳殼을 枳實로 바꾸고, 人蔘을 加한 것으로 蜜丸을 만든다. 産後의 便秘澁을 治療한다.

5) 臨床報告

(1) 脾約<sup>47)</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28歲.

② 症狀 : 大便燥結하여 5-6日에 한 번씩 大便을 보았으며, 매번 排便이 困難했고, 힘을 쓰면 땀이 비오듯했다. 口脣이 乾燥하였으며, 舌에 津液을 묻히면 돌은 厚皮처럼 되었으며, 조금 후에는 입술이 깨어져 피가 났다. 그 脈은 沈滑하고, 舌苔는 黃하였다.

③ 辨證 : 胃強脾弱의 脾約症에 屬한 것으로 脾榮은 脣에 있는 것이므로 脾陰이 不足하면, 즉 脣이 乾燥하고 갈라지는 것이다.

④ 治療 : 麻子仁丸을 服用한 後에 治療되었다.

43) 本方에 川楝子, 烏梅, 陳皮, 檳榔, 枳殼을 加하고, 芍藥, 厚朴을 去하여 蛔虫性 腸閉塞症 47例를 治療하였다고 報告하였다. 醫藥衛生, 1965 ; 10 : 40

44) 《浙江中醫雜誌》1985;4:174-175

45) 《萬病回春》에 收載됨

46) 《證治准繩·女科》에 收載됨

47) 《傷寒十四謔》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5.

(2) 産後便秘<sup>48)</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29歲.

② 症狀 : 産後에 大便이 秘結하고, 3-4日에 한 번 씩 排便하였다. 이로 因해 肛門에 裂傷이 나고, 疼痛이 참기 어려워 內科에 가서 診療를 받았다.

③ 治療 : 한편으로는 水針注射로 裂傷을 治療하였고, 한편으로는 麻子仁丸을 써서 大便을 調理하였다. 15日을 前後로 肛裂은 基本的으로 愈合되었고, 大便 역시 正常이 되었다.

(3) 回蟲性腸梗阻<sup>49)</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6歲.

② 症狀 : 陳發性 腹痛이 3日間 繼續되었다. 嘔吐, 腹脹, 大便不通도 2日間 兼하여 入院治療하였다.

③ 辨證 : 回蟲性腸梗阻로 診斷하였다.

④ 治療 : 水液을 供給하고 灌腸한 後 2種의 蟲이 排出되었고, 排便은 없었으며 腹痛, 腹脹 等の 證狀도 減少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加味麻仁湯을 服用시켰다. 麻仁 9g, 杏仁 9g, 陳皮 4.5g, 白芍 6g, 川朴4.5g, 枳殼 6g, 大黃 9g, 烏枚 9g, 檳榔 9g으로 服用 後 2時間에 腹痛은 明瞭히 減少하였다. 下午 6時에 蟲團 3개가 더 排出되었는데, 모두 100餘마리나 되었다. 臨床症狀은 그에 따라 消失되었다. 病院에 2日間 治療를 더 받은 後에 完治되어 退院하였다.

5. 蜜煎導方

1) 處方構成

食蜜 七合

2) 該當條文

(1) 津傷便硬, 便意頻數而 不解者

○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硬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土瓜根及猪膽汁 皆可爲導(235條)

3) 諸家들의 設

高學	凡攻下等方, 固有高下, 已悉太陽. 十棗, 陷胸注下, 其上中二焦, 原無熱邪結聚, 不過大腸血少, 氣滯難行, 或大腸熱, 閉結而亂行, 若用承氣諸藥, 直從胃攻下, 是傷無辜, 而食少腹脹之病作矣. 故血少者, 用蜜導以潤之. 熱結者, 用猪膽導以泄之, 庶乎大便秘行而于胃腑無傷也.
柯琴	經曰: 外者外治, 內者內治, 然外病必本于內, 故薛立齋于外科悉以內治, 故仲景于胃家實者. 有蜜煎膽導等法. 蜂蜜釀百花之英, 所以助太陰之開, 膽汁聚苦寒之津, 所以潤陽明之燥, 雖用甘苦之不同, 而滑可去着之理則一也. 惟求地道之通, 不傷脾胃之氣, 此爲小便自利津液內竭者說, 而老弱虛寒無內熱症者最宜之.
程應旻	津液內竭而硬, 故自欲大便, 但苦不能出耳, 須其有此光景時, 方可從外導法, 澀潤其腸, 腸潤則水流就濕, 津液自歸而恒胃故不但大便通, 而小便亦從內轉矣, 蜜與土瓜根大猪膽汁皆可者, 勢因其便無煩難也.
汪昂	蜜煎導法, 仲景通大便, 治陽明證, 自汗, 小便利, 大便秘者. 蜂蜜, 用銅器微微熬, 頻攪勿令焦, 候凝如飴, 捻作挺子頭銳如指, 糝皂角末少許, 乘熱納穀道中, 用手抱住, 欲大便時去之, 加鹽少許亦可, 鹽能潤燥軟堅, 此手陽明藥也. 蜜能潤物, 熱能行氣, 皂能通竅, 經曰: 表解無證者, 胃實忌攻, 故外導而通之, 不欲以苦寒傷胃也.
汪琥	或問小便自利, 大便秘, 何以不用麻仁丸. 余答云: 麻仁丸治胃熱, 尿結于迴腸以內. 茲者, 胃無熱證, 尿已近肛門之上, 直腸之中, 故云因其勢而導之也.
錢潢	白蜜七合, 一味入銅銚中, 微火煎, 試其冷則硬, 勿令炒, 入猪牙皂角少許, 熱時手捻作挺, 令頭銳根凹, 長時半者三枚. 待冷硬, 醃乳少許, 納穀道中, 其次以銳頭頂凹而入, 三枚盡, 以布著手指抵定. 若即欲大便, 勿輕去, 俟先入者已化, 大便急甚, 有旁流出, 方去手, 隨大便出.
吳謙	陽明病, 自汗出, 或發汗, 小便自利者, 此胃津液內竭, 雖大便秘而無滿痛之苦, 不可攻之, 當待津液還胃, 自欲燥屎已至直腸, 難出肛門之時, 則用蜜煎潤竅滋燥, 導而利之.
呂震名	按汗出而屎硬, 何殊陽明內實之證但小便自利, 則津液內竭, 慎不可攻矣. 一切下劑, 皆在禁例. 誤投之則重虛其津液, 故宜蜜煎導而通之. 不從內治, 但從外治, 但使硬屎得下, 仍無傷于胃氣也.

4) 臨床應用

習慣性便秘, 體虛하여 排便이 無力한 等에 應用하였으며, 蜂蜜을 內服해서 便秘를 治療하는데 活用되었다.

5) 臨床報告

(1) 老人津枯便秘<sup>50)</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68歲.

48) 《武漢市中醫醫院院幹》 1979 ; 227

49) 《中草藥通信》 1973 ; 4 : 26

50) 《傷寒論臨床實驗錄》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4

② 症狀 : 大便이 恒常 7-8日 동안 不行하고, 심지어 泄瀉藥을 服用하지 않으면 10餘日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였다. 平素대로 飲食을 매우 적게 먹는 상태에서 泄瀉藥을 먹었는데 脘滿, 氣短, 心悸를 느끼고 飲食物 또한 消化되지 않았다. 便秘 不行하고, 往往 胃脘膨滿 小腹脹滿, 飲食不思하였다. 脈은 細弱하고 尺脈은 沈澁하였다.

③ 辨證 : 이는 氣血이 俱虛하고, 陰津이 枯渴한 證으로 이에 下法을 쓰면 胃가 傷할 뿐 아니라, 津液까지 損傷되는 것이다.

④ 治療 : 蜜煎導으로 三日 間隔으로 一次씩 施行하였다. 蜜煎 使用後 半時間 程度면 溇泄이 一次 行하였다. 脹滿의 症狀뿐 아니라, 食慾도 점차 好轉되었다. 以後에 患者가 半年동안 使用하여 健康이 漸漸 恢復되었다.

6. 猪膽汁方

1) 處方構成

大猪膽一枚 瀉汁少許法醋

2) 該當條文

(1) 津傷便硬, 便意頻數而 不解者

○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不利者 此爲津液內竭 雖硬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土瓜根及猪膽汁 皆可爲導 (235條)

3) 諸家들의 說

成無己	《內經》曰: 若調寒熱之逆, 冷熱必行, 則熱物冷服, 下噎之後, 冷體既消, 熱性便發, 由是病氣隨愈, 嘔噦皆除, 情且不違, 而致大益. 此和人尿, 猪膽汁鹹苦寒物于白通湯劑中, 要其氣相從, 則可以去格拒之寒也.
繆希雍	膽, 味苦氣寒, 經曰: 熱淫于內, 寒以勝之, 苦以泄之, 故主傷寒熱渴也. 仲景膽道法以猪膽汁和醋少許, 灌穀道中通大便, 神效
張璐	用膽者取其瀉肝膽之火, 故仲景白通湯用爲向導. 蓋寒能勝熱, 潤能潤燥, 苦能入心也. 傷寒熱邪燥結, 有猪膽導法.
舒詔	汪仞奄: 猪膽汁寒勝熱, 滑潤燥, 苦能降, 酸善入, 故能引入大腸而通泄, 津枯者, 宜蜜導, 熱盛者, 宜導
王晉三	啓下焦元陽, 但陰甚格拒, 恐陽藥入中, 強梁不伏, 故以猪膽汁苦寒從陰之性, 引領陽藥從心通脈, 先和陰而後復陽.
黃	入足少陽膽經. 清相火而止乾嘔,

4) 臨床例

(1) 傷寒津虧, 大便秘結<sup>51)</sup>

① 性別 및 年齡 : 男, 46歲.

② 症狀 : 이 患者는 傷寒에 여러 차례 發汗하였으나, 心中煩熱不寧, 腹滿, 不思飲食, 口乾舌燥, 精神萎靡, 謔語 등의 症狀이 나타났다. 또한 口乾舌, 苔黃燥少津하고, 脈象은 大而空하며 大便은 五日을 보지 못하고, 飲食하면 即時 嘔하고 藥物을 먹고 돌아선 即時 吐出하였다.

③ 辨證 : 이것은 熱邪가 胃腸에 陷한 것이요, 胃腸之熱을 清하지 아니한 卽 病이 낫지 않게 된다.

④ 治療 : 胃腸之熱을 清해야 한다. 그러나 藥物을 넘기기가 甚히 어려웠다. 여기서 治療의 關鍵은 通便泄熱에 있으므로 熱氣가 行한 卽 嘔逆은 스스로 멈추게 된다. 猪膽汁의 灌法은 新鮮한 猪膽汁一枚를 溫水中에 두고 米醋一兩을 灌入하여 溶化한 後 猪囊口를 竹管의 한쪽 끝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 끝을 肛門에 대어 猪膽汁과 醋를 腸內로 導入하는 것이다. 약 20分 後에 腹中이 隱隱作痛함을 느끼고, 燥屎 十數枚를 본 後에 穢臭가 나는 大便을 보았다. 이에 腹滿이 減하며 煩熱이 寧하고 嘔가 그치고 마음이 爽快하고 食慾이 생겼다. 以後에 清熱和胃之劑로써 調理하여 完治되었다.

(2) B型 腦腦炎<sup>52)</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6歲.

② 症狀 : 高熱로 因하여 嗜睡가 3日間되었고 抽搐昏迷가 반나절 동안 繼續되었다. 診斷은 重型的 "B型腦炎"과 더불어 肺炎으로 나타났다. 體溫은 40.3℃, 脈搏數는 1分에 134回였다. 病程은 嗜睡昏迷狀態이고, 面色紅赤, 驚厥, 陳播, 呼吸促, 心搏動이 빠르고, 또한 肺에 乾濕性的의 소리가 나고, 바빈스키 反射가 나타났다.

③ 治療 : 病院에 온 後 이미 體溫이 내려가고, 冬眠, 脫水가 있어 東西藥으로써 綜合治療하였다. 이틀제에 猪膽汁50ml(生理的 食鹽水와 新鮮한 猪膽汁液을 1 : 4로)를 保留灌腸하기를 매일 한차례

51) 《傷寒論臨床實驗錄》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4

52) 《新中醫》1975 ; 2 : 45

씩 하였다. 三日째에 抽搐이 停止하고 熱이 내리고, 神清, 肺部的 번거로운 羅音 및 咽喉部の 疾鳴音이 減弱하고, 더불어 猪膽汁灌腸한 當日에 綠黑色 大便 및 蛔蟲 10條를 排出하였다. 통털어 灌腸을 6次例하였고 來院 10日만에 退院하였다.

(3) 部分腸梗阻<sup>53)</sup>

① 性別 및 年齡 : 女, 49歲.

② 症狀 : 腹痛과 嘔吐가 10餘次例 있어서 入院하였다. 患者는 2年前에 謀病院에서 盲腸炎 手術을 받았었고, 일찍이 腹腔內 腸道閉塞으로 手術한後 2周後에 出院하였다. 入院時에는 中度의 脫水, 腹部의 中度膨脹, 鼓音, 腸鳴音 亢進, 腹部의 壓痛等이 있었으며, 腹直筋이 緊張하였다. 血色素는 88%, 白血球는 7000이었으며, 赤血球 454萬, 中性球 81%, 淋巴球 16%, 單核球 3%였고, 其他 異常所見은 없었다.

③ 辨證 : X-ray 所見은 腹部小腸充氣 및 有液平面이 있었으며, 臨床所見은 部分梗阻, 手術後의 粘連融合으로 보였다.

④ 治療 : 入院한 即時 膽汁灌腸을 2次例 사용한 以後, 一般 技術療法를 썼다. 灌腸 後에 效果가 良好하여 症狀이 漸次 消失되었고 入院後 6日後에 退院하였다.

#### IV. 總 括

承氣湯類라 함은 陽明病 腑實證에 瀉下의 目的으로 構成된 方劑로 傷寒論에 모두 大·小·調胃承氣湯 및 麻子仁, 蜜煎導法, 猪膽汁法의 六種의 處方이 記載되어 있는데, 各 處方의 病理, 藥物構成 및 臨床活用을 比較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 1. 大承氣湯

大承氣湯의 適應病證에 대하여 대부분의 注家들은 그 견해가 一致하였는데<sup>9-12,14,17)</sup>, 주로 熱邪가 入裏하여 熱盛으로 傷津하고 實熱과 積滯가 腸胃에서 內結된 陽明腑의 實證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認識<sup>2,4,5)</sup>하였다. 이들의 病機는 燥熱과 腸道の 糟

粕이 搏結하여 阻滯不通하므로 大便이 硬하며 難出하고, 脘腹이 痞하며, 疼痛하여 拒按하고, 陽明裏熱이 灼盛하여 外部로 蒸騰하므로 潮熱汗出이 있으며, 燥熱의 邪氣가 濁氣를 끼고 上攻하면 心神이 優亂되므로 神昏譫語하고, 熱邪가 津液을 傷케 하므로 舌紅苔乾黃, 或은 焦燥하여 起刺하고 脈이 沈遲하거나 沈實有力하게 되는 것이라 要約할 수 있다<sup>2,5,10-14)</sup>.

本方의 主證을 크게 “痞, 滿, 燥, 實”의 네 가지로 注家들은 歸納하였다<sup>2,5,15)</sup>. 韓醫學에서 “痞”는 胸脘部에 閉塞重壓感이 있는 것을 自覺하는 것이고, “滿”은 脘腹이 脹滿하고 手按하였을 때 抵抗感이 있는 것을 말하며, “燥”는 腸中에 糞塊가 燥하고 堅하여 手按하면 堅硬한 것을 말하며, “實”은 腸胃에 燥屎가 있어 熱邪와 互結하여 便秘, 腹痛拒按, 或은 下利清水臭穢하며 腹痛이 拒按한 것으로 定義<sup>1)</sup>되는데, 特히 痞와 滿은 腸中의 宿食이 停滯되어 腸胃의 運化가 失調되어 腑氣가 蓄積, 結滯됨으로 因한 一種의 無形의 氣滯를 말한 것이고, 燥와 實은 津液이 邪熱에 依해 消耗되고 實熱의 積滯가 形成된 一種의 有形의 熱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18,20)</sup>.

그러나 臨床에서 痞滿과 燥實은 모두 相互影響을 주는 因果的인 關係로, 氣滯가 熱結을 誘引할 수 있어 痞, 滿이 燥와 實을 加重시킬 수 있으며, 燥, 實은 氣滯의 形成을 加重시킬 수 있어 氣滯로 因해 熱結化燥로 腑氣가 不通되면 氣滯가 더욱 促進될 수 있는 것으로 認識된다<sup>2,4,9,10)</sup>.

本方名은 本方이 胃氣의 下行을 承順케 하고, 閉者를 通케 하며, 塞者를 暢케 하는 效能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方名을 “承氣”라 命名<sup>10)</sup>하였다. 方中의 大黃은 苦寒하여 泄熱通便, 蕩滌腸胃하므로 主藥이 되고, 芒硝는 鹹寒하여 瀉熱, 軟堅潤燥한다. 또 積滯가 除去되지 않으면 氣滯도 不行하므로 枳實, 厚朴을 佐藥으로 하여 消痞除滿, 行氣散結케 한 것이다<sup>13,15)</sup>. 張<sup>11)</sup>은 “大黃, 芒硝는 上으로 瀉實하고, 枳實, 厚朴은 下氣하되, 芒硝, 大黃은 枳實, 厚朴의 寬腸下氣하는 勢力을 입을 때에 實熱積滯를 瀉下하는 作用이 增強되며, 枳實, 厚朴은 大黃, 芒硝의 瀉實하는 作用을 바탕으로 痞滿을

53) 《中醫雜誌》1957 ; 8 : 431

徹底하게 除去하되 傷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四味が 配伍될 때, 痞, 滿, 燥, 實을 모두 除去하되 “急下存陰”의 效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여 病症과 藥物의 相乘作用에 대하여 比較的 자세히 言及하였다<sup>11,18,19</sup>.

이러한 藥物構成과 效能으로 現在 各種 腸梗阻, 急性膽囊炎, 急性蘭尾炎, 急性胰腺炎, 急性胃炎, 狂病에 널리 活用됨이 臨床적으로 報告된 바가 있다.

## 2. 小承氣湯

小承氣湯은 表證이 이미 解散되었으나, 邪氣가 陽明에 內入하고 裏熱이 熾盛하므로 燥熱과 腸道の 糟粕이 互結하여 阻滯不通되어 나타나는 腹脹滿, 大便硬, 神昏譫語, 舌紅苔乾黃, 脈滑疾 等の 陽明腑實證의 輕證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볼 수 있다<sup>2,4,5</sup>. 이는 本 方의 構成에서도 나타나는데, 上記한 大承氣湯에 비해 芒硝가 없고 厚朴, 枳實의 用量 또한 小하여 作用이 大承氣湯보다 顯著히 弱하여, 行氣除滯, 泄熱通便을 目的으로 使用되었다.

方 中의 大黃은 君藥으로 苦寒하여 破結하여 攻下시키고, 厚朴은 臣藥으로 辛하며 苦溫하여 行氣함으로 脹滿을 消除하고, 枳實은 使藥으로 苦微寒하여 破結하여 消痞시켜, 三味가 함께 實熱을 蕩滌하여 破滯, 消脹, 除滿하는 效果를 나타낸다 볼 수 있다<sup>9-11,14,15</sup>.

柯<sup>10</sup>는 “모든 病은 모두 氣에서 起因하는 것이니, 穢物이 不去하는 것도 氣가 不順하기 때문이므로 攻積하는 方劑에는 반드시 行氣시키는 藥을 主藥으로 하는 것이다. ‘亢則害, 承乃制’는 承氣의 名이 由來한 바이고, 病은 去하였으나 元氣는 損傷되지 않게 하는 것은 承氣의 意가 되는 것이다. 大, 小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은, 그 方意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厚朴을 大黃의 倍로 한 것은 氣藥을 君으로 한 것이므로 大承氣라 名한 것이고, 大黃을 厚朴의 倍로 한 것은 氣藥을 臣으로 한 것이므로 小承氣라 名한 것이다. 또한 味多하고 性猛한 大劑로 만들어 泄下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大라 名하고, 味少하고 性緩하여 小劑로 만들어 胃氣를 微和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小라 名한 것이다.” 라고 大小承氣湯을 區分하였다.

이러한 藥物構成과 效能으로 小承氣湯은 痢疾, 痘疹, 時疫胃熱 流行性日本腦炎 및 手術後 腸梗阻, 腸機能紊亂 等<sup>2,5</sup>에 나타나는 腑實證에 臨床적으로 널리 活用됨이 報告되었다.

## 3. 調胃承氣湯

調胃承氣湯은 汗·吐·下로 因해 亡津液되어 燥熱이 結實되고 胃氣가 不和하여 나타나는 證狀을 治療하는 處方으로<sup>2,4,5</sup>, 이는 《內經》<sup>3</sup>의 “熱淫于內, 治以鹹寒, 火淫于內, 治以苦寒”하는 治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10</sup>.

주된 病機로 病邪가 入裏하여 蒸蒸發熱하는 것은 表邪는 解散되었으나, 邪熱이 陽明에서 結聚된 것으로, 그러므로 惡寒하지 아니하고 다만 發熱하면서 汗出이 있으며, 陽明이 內實하고 胃에 鬱熱이 있으므로, 心煩 또는 譫語, 腹脹滿, 不大便 等の 燥熱이 結實된 證狀이 同伴되는 것으로 要約된다. 舌苔와 脈狀의 症狀 역시 陽明實熱로 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10,15-17</sup>.

方 中에 大黃은 苦寒하여 腸胃를 調和하고, 芒硝는 鹹寒하여 泄熱潤燥하며, 甘草는 甘平하여 緩急和中한다. 處方의 妙는 甘草에 있는데, 能히 芒硝와 大黃의 功下力을 緩化하고 腸胃에 作用하여 潤燥와 調胃의 效能이 있다<sup>2,5,7</sup>. 그러므로 本 方은 胃氣를 調和하고 또한 腸을 通케 하여 利便케 하여, 一方으로 두 가지의 效果를 내게 되므로<sup>4,5</sup>, 陳<sup>15</sup>은 이를 “法中之法”이라고 하여 陽明이 燥熱結實하여, 或은 大便燥堅하나 痞滿이 甚하지 않고, 或은 下後에도 邪熱이 宿垢하여 未盡한 者에 通用하여 治療하는 處方으로 보았다.

이러한 藥物構成과 效能으로 調胃承氣湯은 急慢性腎炎, 正副傷寒, 急性肝炎, 糖尿病, 肺炎, 血管障 碍 等<sup>5,8</sup>에 活用됨이 報告되었다.

## 4. 三承氣湯의 鑑別

三承氣湯證은 傷寒에서 太陽病 或은 少陽病을 誤治하여 傳化되거나, 伏邪가 自發하여 發生하는 것<sup>2,4,5</sup>으로 陽證, 裏證, 熱證, 實證, 陽明腑實證에 屬하며, 모두 潮熱或發熱, 心煩, 汗出, 大便秘結, 譫語 等 陽明府實의 證狀이 나타난다<sup>9-12,15,18</sup>.

大承氣湯證은 痞滿燥實이 모두 重하며 아울러 腹痛短氣, 喘 等を 兼한 것을 다스리는데, 裏實이

漸次 盛해짐과 同時에 神明에 까지 波及되므로 獨語如見鬼狀, 循衣摸床, 目中不了了, 睛不和 等の 症狀을 治療하며<sup>12,14,15)</sup>, 小承氣湯證은 大承氣湯證에 比하여서는 輕하고, 調胃承氣湯證에 比하여서는 重하다. 或 腹痛이 있고, 或 腹滿感이 있다<sup>16,17)</sup>. 調胃承氣湯證은 腹痛, 腹滿이 모두 없으며 가벼운 形態의 裏實證에 屬한다.

整理하여 보면 大便秘, 腹結而滿, 腰臍痛而拒按한 사람은 大承氣湯을 使用하고, 다만 便秘가 있고 腹滿不通하며 或 痛症이 있어도 拒按하지 않는 사람은 小承氣湯을 使用하고, 大便秘, 蒸蒸發熱하는 사람은 調胃承氣湯을 使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5)</sup>.

三承氣湯의 藥物組成을 살펴보면, 大承氣湯의 厚朴은 小承氣湯에 比해 重量이 三倍이며, 枳實의 重量은 五分之二이므로, 大承氣湯證의 腹滿急脹이 小承氣湯證에 比해 훨씬 甚하고 小承氣湯證은 다만 積穢와 氣壅의 病情에 屬하여 그 腹證이 大承氣湯證의 程度에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4,9,15)</sup>. 때문에 厚朴은 겨우 大承氣湯의 四分之一를 使用하고 枳實은 다만 五分之三을 使用하였다. 調胃承氣證은 비록 陽明裏實의 大便秘結이 있으나 痞滿의 證狀은 없으므로 大黃, 芒硝만을 使用하고 또 本證이 대개 胃臟이 이미 虛한 症勢에 屬하므로 甘草를 加하여 和중한 것이다.

結局 三承氣湯은 모두 陽明府實證을 治療하고 그 治療目的도 모두 燥實을 排除하고 裏熱을 清泄하는데 있다. 다만 病情의 輕重緩急의 區別이 있어 用藥에 大, 小, 調胃 三個 承氣湯의 差異가 있다.

-中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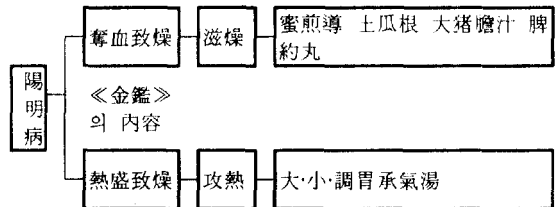
표 1. 三承氣湯의 共通點 및 差異點

湯證 比較		調胃承氣湯證	小承氣湯證	大承氣湯證
共通點	證候	發熱, 汗出, 不惡寒反惡熱, 大便秘, 腹滿, 舌苔黃		
	病機	燥熱與糟粕相結, 氣機阻滯, 腑氣不通		
	治法	泄熱攻下		
	方藥	大黃		
差異點	發熱	蒸蒸發熱	潮熱	潮熱
	汗出	汗出	汗出	手足濇然汗出
	腹部症狀	腹滿一般較輕, 疼痛拒按	復鳴滿較重	腹脹滿硬痛, 或繞臍痛, 拒按
	全身症狀	心煩, 口渴, 甚或譫語	心煩 甚或譫語	心煩不解, 譫語, 甚則喘冒不得臥, 神昏而譫語不止, 或目中不了了, 睛不和, 循衣摸床, 惕而不安
	舌苔	黃燥	黃厚	苔老黃或焦燥起刺
	脈象	滑數或沈實	滑而疾	實或遲有力
	病機	燥實甚, 痞滿輕	痞滿爲主, 燥堅不甚	滿燥實俱重
治則	瀉下燥實, 調和胃氣	瀉熱通便, 破滯除滿	下燥結	
方藥	大黃四兩, 芒硝半升, 甘草二兩	大黃四兩, 枳實五枚, 厚朴二兩	黃四兩, 枳實五枚, 厚朴半斤, 芒草三合	

표 2. 麻子仁丸과 蜜煎導法の 鑑別

項別 方名	病因病機	主要脈證	治療原則
麻子仁丸	胃中有熱, 脾陰不足, 以致大便乾硬難下	大便硬小便數	瀉熱行氣
蜜煎導	津液內竭, 腸燥便難, 屎結直腸, 有便意而不解	大便難小便自利	潤導

표 3. 承氣湯類의 病機 및 治法 概要



## V. 結 論

傷寒 承氣湯類의 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承氣湯類에 關한 藥物構成, 適應病證, 病理 및 臨床

活用 등을 中心으로 比較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三承氣湯의 適應症狀은 陽明病의 發熱, 汗出, 不惡寒反惡熱, 大便結, 腹滿, 舌苔黃의 共通症狀의 에 大承氣湯은 潮熱, 手足濇然汗出, 腹脹滿硬痛, 或繞臍痛, 拒按, 心煩不解, 譫語, 甚則喘冒不得臥, 神昏而譫語不止, 或日中不了了, 睛不和, 循衣摸床, 惕而不安의 腑實證의 重證에 使用하고, 小承氣湯은 潮熱汗出 腹脹滿較重 心煩 甚或譫語의 腑實經證에 使用하며, 調胃承氣湯은 蒸蒸發熱, 腹滿一般 較輕, 疼痛拒按, 心煩, 口渴, 甚或譫語의 陽明 腑實의 가장 輕症에 應用할 수 있다.

2. 潤下之劑中 麻子仁丸은 大便秘結, 小便多, 脈細澁, 習慣性便秘, 或腹微滿不痛 或 不更衣十日 無所苦의 證狀에, 蜜煎導方은 大便硬結難下, 近于肛門, 時有便意而墜脹, 又難于排解, 小便自利, 自汗出, 或有發熱, 譫語, 煩躁, 或腹微脹滿의 證狀에, 猪膽汁方은 腸燥有熱한 便秘의 症狀에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承氣湯類의 病因, 病機를 살펴보면 三承氣湯은 燥熱與糟粕相結, 氣機阻滯, 腑氣不通의 共通病機外에 大承氣湯은 滿燥實俱重을, 小承氣湯은 痞滿爲主, 燥堅不甚을, 調胃承氣湯은 燥實甚, 痞滿輕함을 特徵으로 하고 있으며, 麻子仁丸은 胃中有熱, 脾陰不足, 以致大便乾硬難下을, 蜜煎導法은 津液內竭, 腸燥便難, 尿結直腸, 有便意而不解을, 猪膽汁方은 腸燥有熱을 各各의 病因·病機로써 略述할 수 있다.

4. 臨床應用에서는 大承氣湯은 各種 腸梗阻, 急性膽囊炎, 急性蘭尾炎, 急性胰腺炎, 急性胃炎, 狂病에, 小承氣湯은 痢疾, 痘疹, 時疫胃熱 流行性日本腦炎 및 手術後 腸梗阻, 腸機能紊亂 等에, 調胃承氣湯은 急慢性腎炎, 急性肝炎, 糖尿病, 肺炎, 血管障礙 等에, 麻子仁丸은 老人, 産後, 習慣性便秘 等 高血壓, 動脈硬化症, 慢性腎炎이 便秘와 合併했을 때에, 蜜煎導法은 習慣性便秘, 體虛하여 排便이 無力한 證에, 猪膽汁은 潤燥의 效果보다 腸中之熱을 淸け하는 效果로 腸燥有熱한 便秘에 活用되었다.

## 參考文獻

1. 朴憲在 :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1995.
2. 文濬典外 :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部, 1998.
3. 洪元植 : 校訂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130,
4. 李尙仁外 : 方劑學, 서울, 永林社, pp.69-82, 1992.
5. 李文瑞 : 傷寒論湯證論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6. 安在圭 外 : 大承氣湯의 抽出方法이 家兔 腸管上皮의 粘液細胞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學校大學院論文集, Vol.1, No.1, p.85, 1978.
7. 郭基煥 外 : 理中湯과 大承氣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論文集, Vol.10, No.1, p.505, 1987.
8. 蔡炳允 : 傷寒論 陽明病에 있어서 承氣湯證에 關한 研究, 外管科學會誌 Vol.6, No.1, p.71, 1993.
9. 成無己 : 注解傷寒論, 珍傲宋版印, 1987.
10.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11. 張隱庵 : 傷寒論集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12. 錢橫 : 傷寒溯源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3. 吳謙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4. 尤在涇 :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5. 陳修園 : 傷寒論淺註,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2.
16. 金聖勳外 : 東醫病理學, 大田, 한림원, 1994.
17. 丹波元簡 : 傷寒論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8. 冉雪峰 : 冉注傷寒論,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19. 杜雨茂：傷寒論辨證表解，西安，陝西科學技術出版社，1984.
20. 喻嘉言：喻嘉言醫學三書，南昌，江西人民出版社，1984.
21. 丹波元堅：傷寒論述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22. 李培生 主編：傷寒論講義，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4.
23. 劉渡舟 主編：傷寒論辭典，北京，解放軍出版社，1988
24. 唐容川：傷寒論淺注補正，台北，綜合出版社，1975.
25. 姜鎭春外：傷寒學，서울，一中社，1992.